

후기 라캉이론에서 실재에 관한 연구

박수진*

- I. 서론
- II. 실재에 관한 선행연구
- III. 사회적 환상으로서 실재의 문제
 - 1. 이데올로기로서의 실재
 - 2. 환상으로서의 실재
- IV. 시각예술작품에서 실재의 문제
 - 1. 시각예술작품에서 실재의 귀환
 - 2. 시각예술작품에서 실재와 해석
- V. 결론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라캉이론의 핵심 개념인 실재(the Real)의 문제를 이데올로기(ideology)와 환상(fantasy)이라는 측면을 통해 고찰하고 시각예술작품이 사회적 환상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실재의 사회적, 정치적 해석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언어 외적인 영역이 두드러지는 현대 시각예술작품의 해석이 가지는 의미와 더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해석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이런 출발의 기저에는 사회적 무의식이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모든 작품은 어떤 식으로든 현실과 관계하며 또한 어떤 식으로든 현실을 반영하며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한다는 생각이 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모든 철학과 예술은 시대의 징후

*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예술학) 수료, 경기대학교 강사

(symptom)이다. 정치 분석과 문화 분석은 두 가지 상이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비우스 띠의 두 표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¹⁾

꿈처럼 모호하고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복잡한 구조를 지닌 현대 시각예술작품에서 그 의미를 포착하고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의미를 해석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무의식을 해석하는 정신분석학은 현대 시각예술작품 해석에 적용함으로써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 무의식과 그 이데올로기적 환상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영역에서 정신분석학적 분석은 몇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대체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전기 라캉이론의 언어와 상징계 개념을 강조한 기호학적이고 구조주의적 분석이 있고 후기 라캉이론의 실재 개념을 강조한 분석이 있다. 특히 조안 콕젝(Joan Copjec)이나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 등 후기 라캉주의자들은 언어와 상징계(the Order)를 강조한 구조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며 정신분석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어를 넘어서는 곳, 실재라고 한다. 콕젝과 지젝이 실재를 강조한다고 해서 라캉의 전기 이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라캉 역시 본인의 이론에서 전기의 이론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라캉이론이 전기에서 후기로 이동하면서 위상학적 위치 변경이 이루어 졌을 뿐, 여전히 후기 라캉이론에서 상징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재는 상징계에 의해서만 드러나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징계 역시 실재에 의해 구성된다. 그렇다면 후기 라캉주의자들은 왜 실재에 주목하는가? 실재는 '비 전체'(pas-tout)로서 사회의 윤리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바로 실재에 대한 주목이야말로 정신분석학의 진보성을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시각예술작품이 현실과의 대면 사이에 존재하듯이 시각예술작품은 실재와의 대면 사이에 위치한다. 즉 우리는 시각예술작품을 통해 실재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치명적인 실재와의 만남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신체미술이나 앵젝트 아트(abject art) 등 현대 시각예술작품을 통해 실재는 귀환하며 이들 작품은 실재와의 치명적인 만남을 환상으로 매워준다. 시각예술작품에서도 환상에서도 실재와의 만남은 이중적이란 점에서 시각예술작품이 사회의 환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Slavoj Žižek, *The Metastases of Enjoyment: Six Essays on Women and Causality*, London: Verso, 1994, p. 2.

II. 실재에 관한 선행연구

정신분석학에서 실재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프로이트로의 복귀를 선언한 라캉에게서 새로운 것 중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실재'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기괴함(the uncanny)²⁾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실재의 모습에 접근하고 있으며 라캉에 이르러서 이것을 실재(the real)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프로이트에 의해 소개된 기괴함의 차원은 정신분석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정신분석의 모든 개념들이 한 곳으로 결집하는 차원이며, 그곳에서 논쟁의 다양한 선들이 하나의 매듭으로 형식화된다. 기괴함은 정신분석의 기본 기획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용어는 정신분석의 본질적 차원을 직접 겨냥한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내부와 외부 사이의 분명한 선을 그리는 지속적인 노력이 포함된 전통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외밀함(extimité)의 차원은 이러한 선들을 흐리게 한다. 그것은 내부에도 외부에도 있지 않으며, 가장 내밀한 내부가 외부와 접촉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그럼으로써 위협적이며 공포와 불안を 불러일으키게 된다. 외밀함은 동시에 내밀한 중핵이며 낯선 신체이다. 한 마디로, 그것은 기괴함이다. 프로이트는 "기괴함은 낡고 오래된 친숙한 것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되돌아온 위협의 차원이다"라고 쓴다. 그리고 그것은 "정신"과 "현실"의 구분을 넘어서는 것으로, 라캉적 의미에서 실재(the real)라고 부를 만한 바로 그 차원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신분석학의 개념들이 그 주위를 맴도는 중추지점(the pivotal point)이며, 라캉이 오브제 a라고 부르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프로이트는 기괴함의 수많은 예들을 열거하고, 이론적 반성들로 다듬어진 사례들의 행렬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괴함에 대한 하나의 스케치 또는 서론만을 우리에게 남겼다. 프로이트는 독일어 *das Unheimliche*(기괴함)에 대한 언어학적 논의로서 이 용어를 설명한다. 독일어에서 *das Unheimliche*는 *heimlich*에 대한 표준적인 부정어이며 따라서 그 단어의 반의어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heimlich*를 함축하고 있는 바로 드러나며, 그 의미가 확장됨으로써 두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여 구별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이 있고, 그럼으로써 그 부정이란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 영어 번역 "the uncanny"는, 독일어의 본질적인 애매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지만, 표준번역에서 "l'inquiétante étrangeté"이 되는 프랑스어는 이에 상응하는 등가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라캉은 외밀함(extimité)을 발명해야 했다. Mladen Dolar, "I Shall be with you on your wedding-night": Lacan and uncanny", in *October*, no. 58. 1991, pp. 5~6.

프로이트가 기괴함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신이 든 예들은 엄밀히 특정한 역사적 위기, 즉 계몽주의가 가져다준 특수한 역사적 단절에 위치해 있다. 거기에는 모더니티와 더불어 출현한 기괴함의 독특한 차원이 있다. 전근대 사회에서 기괴함의 차원은 신성하고도 접근 불가능한 영역에 의해 광범위하게 배일처럼 가려졌다. 그것은 권력 구조, 주권, 가치 위계가 발산되어 나오는, 종교적, 사회적으로 공인된, 상징계 내의 어떤 장소에 할당되었다. 계몽주의의 승리와 함께 이러한 특권적이면서도 배제된 장소는 더 이상 없게 된다.³⁾ 말하자면, 기괴함은 위치 지워질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기괴하게 되었다.

라캉이 정신분석의 주체를 데카르트적 코기토에 토대를 둔 모더니티의 주체이며, 칸트적 전회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상의 영역, 즉 대상 a에 대한 논의도 확장해야 한다. 그것은 모더니티의 출현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모더니티에 의해 산출되었다. 먼 과거의 잔여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모더니티의 산물이자, 모더니티의 대응물⁴⁾이다.

라캉이 실재라는 범주의 개념화와 함께 그의 이론의 강조점을 이동함으로써 이론의 전환이 일어난다. 1964년에 행해진 세미나 11권⁵⁾ 이후부터 실재는 엄격하게 라캉의 이론 안에서, 순수한 라캉적인 개념이 되었으며, 주체에 관한 이론은 매우 근본적인 방식으로 변했다. 초기의 라캉에게 주체는 에고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에고는 상상적 질서에 속하며, 이에 반해 주체는 상징계에 속했다. 주체는, 프로이트가 그의 *das Es*(the Id)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술하였듯이, 무의식의 주체(unconscious subject)였으며, 이에 반해 자이는 단지 소외시키는 동일화(alienating identification)의 연속(concatenation)이었다.⁶⁾ 1960년대 초반까지 라캉은 상상계와 상징계의 이러한 대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60년

3) 앞의 책, p. 7.

4) 앞의 책, 같은 곳.

5) Jacques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1964), Edited by Jacques-Alain Miller, trans. A. Sheridan, London, New York: Penguin, 1977.

6) Sigmund Freud, *The Ego and the Id* (1923b), Standard Edition, XIX, pp. 1-66; Jacques Lacan, *The Freudian Thing, or the Meaning of the Returning to Freud in Psychoanalysis* (1955), *É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1977, pp. 114-145. and p. 128.

대 이후 라캉은 에고와 주체간의 분열과 대립 대신에, 주체 그 자체 안에서의 분열 (division and splitting)을 전면으로 등장시켰다.⁷⁾ '주체' 라는 개념 대신에, '분열된 주체(divided subject)' 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즉 언어에 의해 주체가 분열된 것이다.

그렇다면 실재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라캉은 이점에 있어서는 매우 명확했다. 기표를 넘어서는, 원인으로서는 기능하는 실재는 충동(drive)에 의해 덧씌워져 지배되는(drive-ridden) 것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라캉이 충동을 그의 출발점으로 간주했던 이유이다. 실재의 이러한 측면 때문에, 만남은 항상 실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재는 아무런 기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캉은 가르침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실재의 선언(manifestation)을 열거했다. 즉 큰 타자의 큰 타자⁸⁾, 성관계⁹⁾, 여자(La femme)¹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빗금 쳐진 타자라는 개념 속에서 요약된다.

즉 실재는 의미화의 사슬을 빠져 달아나는 잔여의 영역이다. 실재는 의미의 영역 너머에 있기 때문에 상징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며,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주이쌍스(jouissance), 맹목적인 충동의 등록소이다. 상징적 질서로 통합되지 않고 상징화에 저항하는 부분이 항상 남는다. 실재가 표명되는 곳은 의미화의 사슬이 파열되는 곳이기 때문에 실재는 상징적 현실의 통합적 외관을 위협한다. 동시에 실재는 역설적으로 상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재와의 외상적인 만남을 통어하려는 상징화의 시도를 통해 기표들의 자동적인 운동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상징계는 자신의 불가능성의 조건을 자신의 가능성의 조건으로 삼으며, 자기 자신 속에 항상 무의미한 실재의 작은 조각을 포함하고 있다.

7) Paul Verhaeghe, "Causation and destitution of Pre-ontological Non-entity", Dany Nobus, (ed), in *key concepts of Lacanian psychoanalysis*, other press, 1998.

8) Jacques Lacan, (1960) "The Subversion of the Subject and Dialectic of Desire in the Freudian Unconscious",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1977, p. 311.

9) Jacques Lacan, *Le Séminaire, Livre XX, Encore*, Paris: Édition du Seuil, 1975, p. 35.

10) 앞의 책, p. 68.

Ⅲ. 사회적 환상으로서 실재의 문제

1. 이데올로기로서의 실재

우리가 정신분석학을 통해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해석의 추상적 보편성의 차원이거나 또는 특수한 차원, 또는 두 차원의 두 교차지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차원 중 어느 것에도 귀속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배제된 해석의 구체적 보편성의 차원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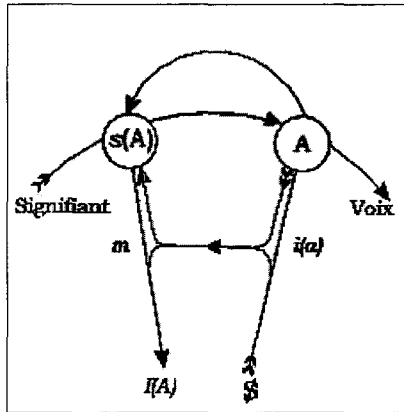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구체적 보편성에 관한 것들은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배제되고 있다. 우리가 정치적 문화적 담론의 장에서 사라져버린 구체적 이데올로기에 주목하고 그것을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보편성, 즉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캉의 해석에 따르면 정신분석은 본질주의적인 논리와 진정한 단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장 예외적인 차원의 것들은 사회라는 상징계를 지탱해주는 이데올로기이며 실재이다. 그리고 구체적 보편성으로서 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단절하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 보편성의 차원을 가리키는 이데올로기이다.

우리의 논의를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알튀세르는 라캉의 동일시 이론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함축을 발견하고 정신분석학의 사회 이론으로의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이 가정의 차원이나 임상 뿐 아니라 그것의 확장인 사회적 관계, 일반의 영역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학·영화 이론을 비롯해서 문화·예술담론에서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이데올로기적 분석으로 받아들이고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알튀세르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이 정신분석학을 사회 정치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보편적 이데올로기와 단절의 길을 터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이 참조하고 있는 정신분석학 이론은 1950년대 라캉 초

11) 정신분석학이 진리를 지향하면서도 꿈이나 망각, 실수 등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헤겔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정신분석학은 구체적 보편성에 관한 학문이며 이것은 가장 예외적인 것을 보편성의 공통분모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다.

기의 작업에 거의 한정되어 상상계/상징계 구도에 기초로 동일시를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로 개념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라캉이 1957-1958년 세미나에서 부터 제시한 욕망의 그래프¹²⁾ 중 두 번째 그래프를 참조하여 그의 동일시 이론을 살펴보자.



〈그림 1〉 첫 번째 동일시(L' identification premiere) 그래프

이 욕망 그래프에서 “signifiant → s(A) → A → Voix”는 기표 사슬로서, 큰 타자 A는 기표의 저장고 혹은 대표 기표인 주인 기표(master signifier)이며, s(A)는 의미작용의 효과인 기의이다. 그리고 주체의 벡터인 갈고리 모양의 “\$ → I(A)”은 이 기표 사슬의 양 끝을 누비듯이 관통한다. 즉 분열된 주체 \$는 m [자아(moi)]이 관계 맺는 i(a) [거울상, 이상적 자아(ideal ego)]와의 상상적 동일시의 상태에서 기표의 연쇄와 충돌, 큰 타자 A와 맞닥뜨리면서 즉 누비지면서, s(A), 즉 큰 타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오른쪽 상단, 큰 타자 A가 있는 위치가 바로 최초의 의미를 생성시키는 누빔점이다. s(A)의 의미 효과를 통해 주체 \$는 자아 이상(ego-Ideal) I(A), 즉 상징적 동일시에 이르게 된다.

이 누빔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누빔은 이 사슬의 벡터를 역행하는 방향이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사후 작용(Nachträglichkeit)’이라고 명명했던 것으로 기의가 기표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표에 의해 사후에 소급적으로 기의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적에 의하면 이로부터 의미가 고정

12) Lacan, Jacques, (1960) “subversion of the subject and dialectic of desire”, in *É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1977, p. 306 & p. 313 & p. 315에서 라캉은 세 개의 욕망 그래프를 제시한다.

되지 못한 부유하는 기표들이 주의 기표의 기의 결여에 의해 통일된 장으로 구축된다는 담론 구성적 함의를 이끌어 낸다.¹³⁾ 다른 한 가지 주의사항은 주체의 벡터의 출발점에 빗금 친 주체 \$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기의가 누빔 작용에 의한 소급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기표들이 부유하지 않고 “항상 이미” 특정한 기의를 지니고 있다는 환영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라캉이 말하는 “반전(retroversion) 효과”이다.¹⁴⁾

누빔점으로서의 주인 기표에 의해 소급적으로 안정되고 통일된 기의가 산출되는 담론 구성 작용에 대응하여 주체의 차원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동일시이다. 라캉은 프로이트가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에서 전개한 여러 개의 동일시를 정리하여 두 개의 동일시, 즉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자코-알랭 밀레의 주석에 따르면 ‘상상적 동일시’가 ‘이상적 자아의 동일시’라면 ‘상징적 동일시’는 ‘자아 이상과의 동일시’이다.¹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상적 동일시는 ‘항상 이미’ 상징적 동일시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는 것이다.

다시 욕망 그래프로 돌아가서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는 기표 사슬의 소급적 의미작용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난다. 주체의 벡터인 ‘\$ → I(A)’는 상징적 동일시로 누빔점인 주인 기표와 교차한다. 상징적 동일시 벡터 안에 포함된 작은 갈고리 벡터인 ‘i(a) → m’은 상상적 동일시의 벡터로 누빔점에 의해 소급적 의미작용의 경로를 따라 의미가 고정된 기표에 이른다. 이로부터 자아 이상은 주인기표이며 이상적 자아는 그것에 의해 소급적으로 의미가 고정된 기표임을 알 수 있다. 이 상징적 동일시의 몰인지인 억압을 대가로 상상적 동일시의 재인지인 의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초기 라캉의 동일시 이론에 의해 알튀세르의 모호한 호명(interpellation) 테제는 정신분석적으로 해명될 수 있으며 이런 해석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받아 온 호명 개념을 정당화 해준다. 다시 말하자면 알튀세르의 ‘항상-이미 주체로 호명 된다’는 ‘자아 이상과의 상징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순간 소급적으로’를 전제로 덧붙인다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13)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pp. 100~102.

14) 앞의 책, pp. 104~105.

15) 앞의 책, 번역본, pp. 105~107.

알튀세르는 맑스의 모호한 이데올로기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있어 주체에 관한 이론이 필수적임을 간과하고 라캉 정신분석학의 동일시 개념을 참조함으로써 자신의 이데올로기론을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은 중요한 개념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를 구성하는 동일시를 교란하는 타자의 존재, 또는 그로 인한 욕망의 문제이다. 정신분석의 이율배반적인 두 축은 이자 관계인 자아/동일시와 삼자 관계인 타자/욕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와의 동일시는 항상 욕망을 초래하는 타자와의 대면에 의해 불안정하게 될 소지가 있다. 즉 타자는 자아의 상상적 동일시를 붕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욕망으로 인한 불안정을 완화시켜 줄 자아 이상의 조정 혹은 대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알튀세르의 호명에는 이런 갈등의 요인이 없다. 즉 그는 타자의 교란을 무시하는데 이는 그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의 존재를 재생산의 관점에서 제기했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런 누락으로 인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은 어떤 특수성도 용인하지 않는 추상적 보편자로 자리매김 한다.

그러나 이런 추상적 보편성은 어디에도 없다. 거짓된 보편화나 성급한 역사화를 부정하면서 지젝이 강조하는 것은 변증법적인 보편성, 헤겔이 말한 구체적 보편성이다. 헤겔의 변증법이 주는 기본적인 교훈은 그러한 보편성이 일단의 특수한 조건들 안에서만 출현해 스스로 명료하게 표현된다는 점이다. 지젝에 따르면 예외를 구조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편성, 특수한 내용의 일부가 되는 보편적 틀, 구체적인 총체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대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비판의 궁극적인 토대는 '현실'이 아니라 적대감에 대한 '억압된' 실재이다. 따라서 지젝이 보는 계급투쟁은 적대감에 대한 억압된 실재가 위장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회적 징후이다. 지젝의 이런 비판은 '포스트모던'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포스트모던 이데올로기 비판의 임무는 기존의 사회 질서 속에서 허구의 위장된 모습으로 시스템의 적대 관계를 지적하고, 따라서 이미 확립된 동일성의 자명성을 낮설도록 만드는 것이다.¹⁶⁾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우리들에게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징후를 말해주는 실재의 핵심으로부터 벗어난, 일종의 도피처인 사회적 현실 그 자체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 보편성으로서 이

16) Slavoj Žižek, "The Spectre of Ideology," in *Zizek Reader*, eds. Elizabeth Wright and Edmond Wrigh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1999, p. 61.

데올로기는 라캉의 상상계(the Imaginary)이다. 단 그 상상계는 사회적 상상계(the social imaginary)이다. 우리의 논의에서는 상징계가 아니라 이 사회적 상상계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상징화의 작업으로 완전히 소진시킬 수 없는 영역인 이 상상계에서만 실재(the Real)의 모습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환상으로서의 실재

큰 타자의 결핍을 감추는 환상의 기능을 통해서 주체는 비로소 세계를 의미 있고 일관성 있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의 발견은 상징적 동일시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실재가 큰 타자의 존재와 주체의 자기의식을 위협하는 한, 환상은 큰 타자와 주체의 결핍을 가려준다.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유지시켜주듯이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 현실은 현실을 틀 지어주고, 바로 이런 이유로 환상은 주체의 예고의 환영을 지탱해주는 버팀대를 제공한다.

이처럼 상징계가 환상에 의해 지탱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지젝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환상은 사회적 장이 그것을 둘러싸고 구조화되는 근본적 분열, 적대를 은폐하는 상상적 시나리오로 이해되고 있다. 즉 상징적 현실이란 모순과 균열로 점철된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좌파식의 정치적 표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징적 현실에 대한 불신이 $S(\emptyset)$ 와 같은 기호로 표기되듯이 상징적 현실의 모순과 비정합성,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서 구성되는 인간주체의 분열을 은폐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 환상이라는 정식이다. 환상은 주체가 상징적 현실의 모순과 불완전성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 균열지점에서 눈을 돌려 여전히 상징적 현실은 일관되고 모든 것은 잘 되리라는 물신주의적 믿음을 지지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한다.

예를 들자면 프로이트는 꿈을 소망충족으로 보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소망을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지만, 라캉은 끔찍한 자신의 욕망의 실재적인 것(the Real)으로부터 외적 현실(reality)로 도피하기 위해 깨어나는 것으로 역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허구적인 요소가 바로 외상적인 실재인 것이다. 여기서 꿈은 실재적인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즉 꿈은 환상과 같은 것이며 또한 꿈은 실재에 대한 방어기제이기도 하다. 지젝은 이러한 라캉의 논의를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관련시킨다.

사정은 이데올로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만드는 꿈같은 환영(illusion)이 아니다. 그 기본적인 차원에서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지지물로서 봉사하는 환상-구성이다. 우리의 효과적이고 실재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구조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에른스트 라클라우와 샬탈 무페에 의해 상징화될 수 없는 외상적 사회적 분할로서의 '적대'라고 개념화된) 어떤 지지 불가능한, 실재적인, 불가능한 핵(kernel)을 가면 씌우는 하나의 환영이다.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우리에게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상적이고 실재적인 핵으로부터의 도피로서 사회적 현실 그 자체를 제공한다.¹⁷⁾

여기에 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을 배격하고 현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통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환상의 의무는 사회가 존재한다는 환영, 적대적 분할에 의해 가로질러지지 않고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사회의 비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구조적 불가능성을 부인하는 동시에 체현하는 '물신'이며 이 수준에서 이것은 결핍을 대리하는, 즉 사회의 비존재를 가리는 타협의 형성물로서의 징후, 즉 '징환(simthome)'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타자의 결핍의 자리에 위치한 '사물의 수준으로 고양된 오브제 a'는 '숭고한 대상'이다.

대상 a는 바로 상징적 질서의 한복판을 꿰뚫는 실재의 구멍, 즉 상징계의 결핍 자체이다. 그것은 객관적 질서를 지탱하는 주관적 보충물이 아니라 주체 없는 객관적 질서에 맞서 주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객관적 보충물이다. 그런 점에서 환상은 대상 a를 가리는 스크린이다. 만약 환상을 거두고 실재에 직면하게 되면 삶은 역겨워진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실재와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에두르거나 넌지시 암시하는 것이며 환상의 틀을 본래 상태로 회복하는 일이다. 이것은 가면 쓰기의 역설인 것이다. 즉 일종의 양식화된 가장이자 가식이며, 연극성과 허구성이다. 상징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 일반의 존재 조건이며, 실재의 불가능성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의 사회현실 자체가 상징적 허구나 환상에 의해 유지된다면 예술작품이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것은 현실 자체를 하나의 허구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의 공간은 역설적이다. 환상은 실재계의 견고한 중핵에 접근하는 유일한 지점이며 위협할 정도로 실재계와 가깝게 대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17)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p. 45.

환상을 통해 외상과 실재의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성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체는 환상 속에서 동시에 실재의 침입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환상을 통해서도 결국은 길들일 수 없어 우리를 환상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다른 현실, 실재 그것은 충동이다. 그런 점에서 지젝은 어떤 점에서는 허구가 현실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한다.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꿈 속으로 도피한다는 통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실재계와의 견딜 수 없는 만남을 피해 꿈에서 현실로 도피하는 것처럼 말이다.

Ⅳ. 시각예술작품에서 실재의 문제

1. 시각예술작품에서 실재의 귀환

라캉은 '실재와의 만남'이 어떻게 시각적인 인식의 형태로 재현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재와 응시된 것과의 상호작용은 주체에게 훨씬 더 많은 알리바이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치료과정에서 주체가 이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에 불과한 궁극적인 응시의 지점으로부터 주체를 떼어놓아야 한다.¹⁸⁾ 이 간극, 분열을 통해서만 주체는 정립되는 것이다. 즉 주체는 분열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또한 예술작품은 허구의 장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허구의 공간에서는 오직 우리의 욕망의 진실만이 절할될 수 있는데, 라캉에 따르자면 이것이 바로 진리가 "허구처럼 구성되는" 이유이다.¹⁹⁾ 환상 역시 실재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예술작품이란 상징계와 실재의 간극 속에 위치한다. 특히 프로이트가 말한 외상(trauma)이 귀환하고 있는 증거는 현대 시각예술작품 경향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1960년대 초 라캉은 <무의식적인 것과 반복>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실재적인 것을 외상의 견지에서 규정하려고 했다. 여기서 라캉은 외상적인 것을 실재적인 것과의 어긋난 만남이라고 정의한다. 어긋난 것이기에 실재적인 것은 재현될 수 없다.

18) Jacques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Penguin, 1977, p. 64.

19) Slavoj Žižek, *Looking Awry, An Introduction to Jacques Lacan through Popular Culture*, Cambridge: MIT Press, 1991, p. 18.

그것은 반복될 수만 있으며 반드시 반복된다. 이 외상은 스크린처럼 작용하는 환상을 파열시킨다. 라캉은 이런 외상적 지점을 투셰(tuché)라고 부른다. 이 세미나에서 라캉은 반복(repetition)과 복귀(return)를 구분하는데 반복은 징후나 기표처럼 억압된 것의 반복이다. 복귀는 상징적인 것에 저항하는 실재와의 외상적 만남의 복귀이다. 징후의 첫 번째 반복은 일상적 실재의 복귀인 두 번째의 복귀를 가리는 것이다. 즉 이것이 실재의 이중성이다.

시각예술작품에서 실재의 귀환은 여러 경향의 예술작품에서 그 예들을 찾을 수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앵펙트 아트를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다. 앵펙션(Abjection)이란 용어는 프로이트의 글 〈사랑의 영역에서 대상천시의 경향〉에서 “앵펙션”을, 〈애도와 우울증〉(1917)에서 “검은 태양”을 끌어내면서 사용했다. 그 의미는 우울증 속의 죽음충동을 삶충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현실, 혹은 상징계로 들어올 때 어머니를 거부하면서 그녀를 천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앵펙션이다. 앵펙션은 구토, 우울증의 근원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승화의 근원이기도 하다.

1990년 이후 현대 시각예술작품에서 언어를 매체로 한 작품 대신 미끈미끈하거나 끈적끈적한 질감을 가진 촉각적인 면을 내세운 작품, 혐오스런 신체의 내부나 피 또는 배설물을 보여주는 작품 등이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시각이라는 감각보다 촉각을 작품 전면에서 드러낸다. 예를 들면 신디 셔먼의 후기 작품들에서 우리는 그런 특징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키키 스미스의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역시 그러하다. 이들 작품에서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욕망이나 시각, 또는 이미지가 더 이상 핵심 키워드가 아니다. 이들 작품은 욕망을 넘어서는 충동의 공간이며 고통의 쾌락이 넘쳐나는 주이쌍스의 공간이다.

앵펙트 아트는 상징계의 억압을 받은 무의식을 상징계와의 관계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상징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부정의 부정이야말로 상징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즉 상징계 속에서 포착될 수 없는, 상징계에서 배척된, 더 이상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신체, 실재의 신체는 절대적 만족을 원하는 충동의 궁극적 목적이다. 충동의 만족을 보여주는 앵펙트 아트에서 이 신체는 실재를 통해 상징이 구성되듯이 이제 상징계를 통해 의미화 된다. 또한 실재의 신체는 말 그대로 실재가 아니라 실재와의 만남을 가로막는 환상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실재와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실재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부정의 형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니 홀저의 작품 〈강간 살인〉은 현대 시각예술 작품이 어떻게 신체 위에 쓰기를 이용하여 실재와 환상을 보여주는가를 제시한다. 이 작품은 보스니아 전쟁에서의 강간 문제를 다룬다. 이 작품에서 홀저는 폭력과 쓰기라는 쟁점을 취할 때의 문제를 복잡하게 보여준다. 홀저가 제시하는 것은 강간과 관련된 세 가지의 전혀 다른 관점이다. 즉 가해자의 관점, 희생양의 관점, 그리고 관찰자의 관점. 그러나 이 작품은 사건의 세 개의 관점, 세 개의 설명이 있다고 해도 외상은 발화되지 않고 남아있다. 즉 예술가가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다. 홀저가 강간의 세 가지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상이한 관점들을 상호불가해한 것으로서만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텍스트 각각이 상이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홀저의 쓰기에서 타자가 불가해한 이유는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타자의 관점과 그/녀의 고통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의 근본적 불가능성 때문이다. 이 불가능성의 이유는 주체가 겪는 폭력은 신체의 고통이 아니라 주체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폭력이고 정신분석은 우리에게 이 자기-지각이 환상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여기서 환상은 주체가 주체의 바로 그 존재를 산산조각 내는 결여, 즉 외상으로 이해되는 라캉적 실재에 가면을 씌워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홀저의 신체 글쓰기는 외상의 실재가 갑자기 표면으로 나와 언어로 기입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글쓰기들은 신체로부터도 분리된 채 남아있다. 즉 폭력은 상징적으로 매개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 상징화될 수 없는 실재를 건드린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⁰⁾

욕망이 사회적 공간이라면 충동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란, 론 아데이, 스틸락, 프랑코 비 같은 바디 래디컬(Body Radicals) 그룹은 자신의 신체를 표현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들에게 신체는 오늘날 개인의 권한이 남아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예술의 상징적 영역은 붕괴되고 신체들은 상징적 의미작용을 내파하는 블랙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되었던 올란의 작품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복합적인 성형수술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수술 장면은 녹화되며 올란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한 논평을 한다. 즉 그녀는 자신의 신체를 공적 논쟁의 현장으로 이용한다. 올란은 아름다움에 대한 현재의 기준들에 도전하며 지배 이데올로기의 규범과 명령

20) Renata Salecl, *(Per)version of Love and Hate*, New York: Verso, 1998, pp. 156~159.

외부에 있는 신체 이미지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수술의 도움으로 올란의 신체는 언어로 변형된다. 올란은 다중정체성을 가지고 유희하고 신체를 변경 가능한 예술작품으로 만듦으로써 일종의 불멸성을 희망한다.²¹⁾ 이때 올란의 작품에서 변화 불가능한 것은 목소리이다. 목소리를 통해 설명을 제공하고 얼굴이 절제될 때 이론적 텍스트를 읽으며 수술과정을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란의 목소리는 동일한 것에 머물러 있는 충동이며 실재이다. 이 목소리는 실재, 즉 자기보다 더한 무언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난해한 현대미술에서 해석과 의미의 문제가 별개인 것처럼 사회와 정치의 문제는 예술의 너머로 보내진 것처럼 보이고 마치 진리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현대미술에서 신체성, 언어를 벗어난 예술의 표현은 부정을 통해 해석이 가능해진다. 신체에 회복 불가능하게 표식을 함으로써 주체는 모든 것을 변화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이 데올로기에 대항해서 항의를 한다. 그리고 현대예술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시되는 상상적 시물라크르와 단순한 유희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신체 속에서 실재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들 작품들은 큰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부정의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상징의 비밀관성을 통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 해석의 지점이 언어를 벗어난 실재이기에 그 해석은 역설로서 가능하며 무의미로서 의미를 구성한다.

2. 시각예술작품에서 실재와 해석

정신분석학의 고전적인 해석은 환자가 진술을 통해 제공하지 않은 숨은 의미를 꿈이나 징후를 통해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해석의 형태는 언제나 “당신이 징후로 정말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욕망하는 x이다” 식이었다. 솔레(Colette Soler)에 의하면 프로이트의 해석방법은 응용 정신분석학으로 빛나갔다고 한다. 즉 프로이트는 예술가의 방법론을 자신의 무의식의 작업이라고 불렀던 것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미술작품과 문학작품을 꿈, 말실수, 징후들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등한 수준에 둔다는 것이다. 솔레의 주장에 따르면 라캉은 프로이트의 입장을 전복시킨 것이다. 쓰여진 텍스트가 “정신분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자가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²²⁾

21) 올란은 사후에 미라로 처리되어 갤러리에 전시되는 것을 계획했다. 앞의 책, pp. 162~163.

그런 의미에서 라캉은 1920년대 이후 정신분석에서 해석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 이유를 1세대 분석가들이 점차 상징주의에 기반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비판했다. 이런 해석방식은 프로이트가 그토록 경계했던 상징해석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해석이이라기 보다는 해독(decoding)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의미, 또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프로이트와 라캉은 항상 진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프로이트와 라캉은 결코 진리에 관한 이론을 만들지 않았다. 라캉에게 있어 진리는 단지 은유적 표현방식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의 결핍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문제는 주체를 분열시키는 상실된 대상들의 측면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진리란 주체의 완전성, 분열되지 않은 주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리는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한, 도달될 수 없는 어떤 것, 어떤 장소에도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것, 따라서 은유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캉은 “진리는 단지 반만 말해질 수 있다 *La vérité ne se laisse que mi dire*” 라고 말한다.

진리와 도달 불가능한 곳인 실재가 서로 관련 맺음을 통해 진리는 ‘욕망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진리를 대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상실된 대상 자체가 아니라 상실된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라캉은 언어가 없다면 진리도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이는 상징계와 실재 사이의 연관성을 표현한다. 실재는 충동의 대상이고, 상상계는 상징계와 실재 사이에 자리 잡으며 이질적인 것을 서로 결합하고 존재케 하는 역할을 한다.

징환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징후를 말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징후는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때로는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후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징환은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체가 자신의 주이쌍스를 조직하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캉은 주이쌍스로 가득 찬 기표를 지칭하기 위해 징후와 환상을 합성한 신조어인 징환 ‘*simthome*’을 만들었다. 주이쌍스의 포기는 그 자체가 ‘잉여

22) Colette Soler, “Literature as Symptom”, in *Lacan and the Subject of Language*, ed. Emilie Ragland-Sullivan & Mark Bracher, London: Routledge, 1991, p. 213.

향락'인 주이쌍스를 만든다. 그러므로 징환이란 인간주체가 주이쌍스를 어떤 의미화 상징형성, 우리의 세계 내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계속성을 보장해주는 이 형성에 결속시킴으로써 광기를 피하는 한 방식이다.²³⁾ 이와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에서 의미와 해석은 소급해서 구성된다. 특히 앞서 고찰한 앵펙트 아트나 신체절제의 예술에서 우리는 실재를 통해 상징, 즉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실재라는 무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코 의미는 형성될 수 없다. 라캉은 이때 환상 개념을 보충하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환상은 상상적 창조물과 다른 어떤 것으로 상징화가 불가능한 실재를 건드리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화가의 창조 작업에서 독창적인 환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라캉은 상상계적인 환상에서 대상 a는 도착적인 욕망 속에서 가장 명확한 형태를 띠고 환상은 도착적인 욕망 속에서 구체화되고 작동한다고 한다. 그러나 도착적인 욕망이 아무리 꺾이하게 보일지라도 주체가 환상 속에 항상 존재해서 그것에 개입한다는 사실이 잊혀지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즉 환상 속에서 주체는 항상 존재가 지닌 비애, 존재 자체의 고통, 또는 성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는 고통과 연관된다.²⁴⁾ 라캉은 이 환상 속에 내포된 바로 그 틈새 속에 주체를 말하는 주체로 재정립한다.²⁵⁾ 그러므로 라캉에게서 환상은 작가의 것 뿐 아니라 해석자의 것까지 포함한다. 이는 우리가 예술작품의 분석에서 바로 실재, 즉 상징화 불가능한 중핵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능하다. 라캉식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정신분석학은 의미가 아니라 무의미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사회적 환상으로서 실재를 이데올로기와 환상을 통해 접근하고자 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실재는 구체적 보편성으로서의 이데올로기로서 해석의

23)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p. 56.

24) Jacques Lacan, "des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Hamlet", in *Yale French Studies*, no.55/56, 1977, pp. 15~16.

25) Jacques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Penguin, 1977, p. 83.

추상적 보편성의 차원이나, 특수한 차원, 또는 두 차원의 두 교차지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차원 중 어느 것에도 귀속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배제된 해석의 구체적 보편성의 차원을 의미한다.

또한 환상에 의해서 상징적 현실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환상은 주체의 에고의 환영을 지탱해주는 버팀대를 제공한다. 현실(reality)이란 우리가 욕망의 실재를 감추게 해주는 환상의 구성물(fantasy-construction)이다. 이데올로기는 단지 견디기 힘든 현실(reality)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만드는 몽롱한 꿈과 같은 착각(dreamlike illusion)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 자체를 유지하는 일에 기여하는 환상의 구성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환상으로서 이데올로기는 유효한 현실의 사회관계들을 구성하며 따라서 견딜 수 없는 실재의 불가능한 핵심(insupportable, real, impossible kernel), 즉 실재를 가려준다.

시각예술작품은 허구의 장소, 즉 환상을 보여준다. 허구의 공간에서는 오직 우리의 욕망의 진실만이 절합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가 “허구처럼 구성되는”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시각예술작품이란 사회적 환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Althusser, Louis, *Writings on Psychoanalysis : Freud and Lacan*, eds. Oliver Corpet, Francois Matheron, trans. Jeffrey Melm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Copjec, Joan, *Read My Desire: Lacan against the Historians*, MIT Press, 1994.
- _____, *Imagine There's No Woman: Ethics and Sublimation*, Cambridge & London: MIT Press, 2002.
- Dolar, Mladen, “I Shell Be with You on Your Wedding-Night”: Lacan and the Uncanny”, in *October*, no. 58. 1991.
- Foster, Hal, *The Return of the Real*, Cambridge & London: MIT Press,

1996.

Sigmund Freud, (1923) "The Ego and the Id",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XIX*, ed.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ress, 1961.

Lacan, Jacques, *Écrits*, Paris: Édition du Seuil, 1966.

——— *Séminaire VIII (1959-1960): L'ethique de la psychoanalyse*, Paris: Édition du Seuil, 1986.

——— *Séminaire XI (1964):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oanalyse*, Paris: Édition du Seuil, 1973.

——— *Le Séminaire, Livre XX, Encore*, Paris: Édition du Seuil, 1975

——— *É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1977.

———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I: The Ethic of Psychoanalysis (1959-60)*,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Dennis Porter, New York & London: W.W. Norton & Company, 1992.

———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I: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Penguin, 1977.

——— "des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Hamlet", in *Yale French Studies*, no.55/56, 1977.

Salecl, Renata, *(Per)version of Love and Hate*, New York: Verso, 1998.

Soler, Colette, "Literature as Symptom", in *Lacan and the Subject of Language*, ed. Emillie Ragland-Sullivan & Mark Bracher, London: Routledge, 1991.

Verhaeghe, Paul, "Causation and destitution of Pre-ontological Non-entity", Dany Nobus, (ed), in *key concepts of Lacanian psychoanalysis*, other press, 1998.

Žižek, Slavoj,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 *Looking Awry, An introduction to Jacques Lacan Through*

- popular culture*, Cambridge: MIT Press, 1991.
-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Enjoyment as a Political Factor*, London: Verso, 1991.
- *The Metastases of Enjoyment: Six Essays on Women and Causality*, London: Verso, 1994.
- *The Plague of Fantasies*, London: Verso, 1997.
- *The Ticklish Subject*, London: Verso, 1999.
- *Zizek Reader*, eds. Elizabeth Wright and Edmond Wrigh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1999.
- *The Fright of Real Tear: Krysztof Kieslowski Between Theory and Post-Theory*, BFI, 2001.
- *Did somebody Say Totalitarianism?: five interventions in the (Mis)use of a Notion*, London: Verso, 2001.
-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New York & London: Verso, 2002.
- Zupancic, Alenka, *Ethics of the Real: Kant, Lacan*, New York & London: Verso, 2000.

■ Abstract

Study of the Real in the Post-Lacanian Theory

Park, Soo-Jin

This study aims at the observation of the Real in the Post-Lacanian theory. It is focused on two questions as ideology and fantasy.

On this basis Slavoj Žižek has rearticulated the theory of ideology by reexamining Althusser's version of it critically. The ideology is the logic of fantasy based on the foreclosure. And the ethical act of identifying with the symptom is absolutely called for in order to radically rearticulate it. The really key element in the concept is now found to be Lacanian object a, the symptom as jouissance.

In additional, the two part of the study, far from belonging to two different domains, that of political analysis and artistic analysis, relate to each other like the two surfaces of a Moebius band.

Finally, the role of the Lacanian real is radically ambiguous: true, it erupts in the form of a traumatic return, derailing the balance of the Order, but it serves at the same time as a support of this very balance. The real functions here not as something that resists symbolization, as a meaningless leftover that can not be integrated into the symbolic universe, but on the contrary, as its last support.

key word: the real, ideology, fantasy, uncanny, drive, abject art,